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7호 [부제 제25470호] 주제 105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 동지, 녀성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순 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녀성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뜻깊이 이어 사회주의수호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참담게 이바지하고있는 대회참가자들

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주체적 조선녀성운동의 개척자이시며 락월한 영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태양의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공경에도 불구하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행복을 지닌 대회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새시대 조선녀성들의 뜻깊은 대회합을 마련해주시고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의

강화발전을 위한 불멸의 대강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녀성운동사상과 영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깊이 빛내이며 우리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지늬이 조선녀성운동의 승리적전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당의 인전대, 믿음직한

방조자로서의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녀성동맹을 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혁명의 한복수배바위를 역세게 떠밀고 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단위들에 감사를 보내시었다

## 위대한 김정일 동지 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단위들에 감사를 보내시었다.

인민군대가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주동이 되고 핵심이 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심장속에 간직하고 조선인민군 우월소속부대 지휘부, 총명일소속부대, 리철홍소속부대, 김명기소속부대, 배경봉소속부대, 장춘원소속부대, 주명철소속부대, 안영식소속부대, 안성남소속부대, 최봉섭소속부대, 리승규소속부대, 리순일소속부대, 김홍길소속부대, 허상욱소속부대, 리영하소속부대, 박만식소속부대, 리성복소속부대, 김영근소속부대의 장병들은 혁명적당군의 불패의 기성과 위용을 날김없이 떨치며 조국의 북방방역에 그 어떤 천지동파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보금사리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려명기리건설동력대 인민보안성려단, 대외건설지도국려단, 수도건설위원회려단, 922건설동력대 세포사단, 함경북도 마천명굴건설동력대의 동력대원들도 당의 믿음, 온 나라 인민의 기대를 배에 새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일전을 벌려 건설의 첫삽을 막은 때로부터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막은 살림집건설을 완전히 끝내였다.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사령관단인 지령한 전진으로 선포하고 200일전투의 주마적방향으로 정한 당의 뜻을 받들고 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성, 기계공업성, 제철성, 임업성, 전력공업성, 화학공업성, 경공업성, 식료이용공업성에서는 복구건설에 필요한 건설력량과 자재, 장비, 설비들을 최우선 보장하며 막은 복구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끝내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김혁제철련합기업소,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대안천선유리공장, 청진수지관공장, 천리마리일공장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것처럼 피해복구전투에 필요한 강재,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 증산동력전에 총열기, 총매천하여 당에서 준 전투목표를 당에서 정해준 기일인애 성과적으로 달성하였다.

평양시, 평안북도, 남포시, 라선시, 강령도, 평안남도, 자강도당위원회들과 인민위원회들에서는 복구건설에 대한 지원열풍을 새차게 일으키며 수많은 식량과 생활필수품들, 건구류와 교구비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맞이안은 인민군장병들과 일꾼들, 근로자들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전위부대의 기적을 창조한 그 정신, 그 기적으로 총정의 200일전투를 빛나게 경속하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 나갈 혁명적의에 넘쳐있다.

김정일 동지 회고위원회가 3일 벨기에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쓰피에에 있는 김일성 동지실 책임자 마리아 안젤로바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각하회고 오스트리아위원회가 7일 빈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축전 협회 서기장 토마스 뢰히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회고 로씨아위원회가 8일 모스크바에서 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아협회 위원장 배 아. 페트로브를 위원장으로 하는 회고위원회에는 전 쏘련국방상 대. 페. 야조브, 로씨아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쉬 우말라도바를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이 망라되어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사진 및 도서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동지 회고 마자르위원회가 8일 부다페스트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자르공당 위원장 유르메르 줄라가 선출

【조선중앙통신】



# 인민군대 어로전사들의 모범을 따라 수산혁명이 거세찬 불길로 물고기대풍을 안아오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쁨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위에 바다왕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바다남자는 사나웠다. 하지만 통원앞바다에서는 수많은 작업선들이 군함마냥 난파도를 뚫고 헤쳐나며 격렬한 물고기잡이전투를 벌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5월 27일수산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접한후 더욱더 분발하여 나선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어로공들의 투쟁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는 격전장이였다.

홍원수산사업소 가공모선 《아달산》호에 수심의 물고기를 부리는 김책수산사업소 1선단 작업선 《X-만-19》호 어로공들은 또다시 어장으로 나갈 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아달산》호에서 밤낮이 따로 없이 벌어지고있는 물고기잡이전투에 대한 취재를 받음과 함께 우리는 《X-만-19》호 어로공들의 투쟁이야기도 전하기 위해 그 때에 올랐다.

11월의 이른아침이어서 차가운 공기가 두들음을 확 잡았다. 옷자락을 헤치며 세차게 스며드는 바다바람 또한 간단치 않았다. 허나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는 어로공들의 구리

## 동승기

빛깔과마데에는 오늘의 어로전투에서도 거머쥔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안아올 의지가 넘쳐나고있었다.

잠시후 《X-만-19》호는 또다시 어로전투를 벌이기 위해 출발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신장 전성만동무가 조라를 잡고 능숙하게 배를 몰아갔다. 선미쪽 갑판에서는 어로공들이 얼마후에 있게 될 투쟁작업을 성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기그물을 정비하고있었다.

얼마를 지나 중심어장을 가까이 하니 여기저기에서 프랑크잡을 하는 작업선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것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고기배들이었다. 프랑크를 쫓고 파갈피를 친것은 그 한적한적의 배를 둘러싸고 있는 수산정책관들의 뒀 앞에서 새로운 어

## 결사관철의 항로 따라 전속 앞으로!

### 김책수산사업소 1선단 작업선 《X-만-19》호를 타고

로인화를 창조하며 내달리고있는 일꾼들과 어로공들의 모습이 선히 보이는것만 같았다.

《정말이지 프랑크사나를 바다에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의 투쟁기쁨을 본받아 투쟁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머리가 숙여지곤 합니다. 사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고리한 날씨에는 거의 바다에 나가지 못하였었습니다.》

이렇게 서두름엔 신장 전성만동무는 조라를 다시한번 역세게 틀어잡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어로공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조카이 말처럼 친하고 같은군대이다. 프랑크 사냥과 어로전투를 포기하는것은 전파의 나날 자기가 지켜온 고지를 버리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정진을 번번히 차리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

사들이 이어가는 결사관철의 항로 따라 내달릴 결의분 끝까지 다졌습니다.》

그 말에는 이미 말처럼 두루메기잡이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오늘날도 어로전투를 계속 벌려나가고있는 김책수산사업소 일꾼들과 어로공들의 투쟁분파와 일본새가 역력히 비쳐있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이 어로공들과 함께 배에 올라 조라도 잡고 그 불도 끌어올리며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 사업소 담당, 행정일꾼들이 정승호, 최경철, 태성봉동무들, 양양작업중 쫓박에 그물이 더져 잡은 물고기들이 허실될수 있는 긴급정황에 조성되었을 때 서슴없이 바다물이 뛰어들어 격전의 본분 초초를 이어간 《X-만-18》호 신장 김경삼동무들

비롯한 어로공들... 《X-만-19》호는 어느덧 중심어장에 이르렀다. 어군탐지기기를 주시하던 신장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어렸다. 탐지기기면에 두리운 도루메기배가 나타났것이었다. 신장은 조금만 지체하면 배를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다 놓칠수 있다고 하며 선원들을 향해 외쳤다.

《투망!》 신장의 구령에 따라 만단의 눈비를 갖추고있던 어로공들이 능숙한 솜씨로 짧은 시간에 투망작업을 끝냈다. 이 정도의 물고기배이면 20분만 트라작업을 해도 수심의 물고기가 들에 걸려들것이라고 사업소담당 일군이 우리에게 말했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배에는 벌써 북적한 힘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신장이 대화

기를 통해 외쳤다. 《양각도 일곱, 열하나, 즉시 우리 배가 위치한 해역으로 자리를 옮기자.》

사업소의 다른 고기배들의 선장들에게 하는 말이였다. 《일었다.》

《현재 양양중이다. 작업이 끝났으면 즉시 그곳으로 가겠다.》... 여러 선장들의 목소리가 울랄아 대퇴기를 통해 울려나왔다. 바다에서 선장들이 수시로 주고받는 이러한 어휘들은 때때로 알리지, 따라배우기, 경험교한 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있었다.

드디어 양양작업이 시작되었다. 편양기에 바늘이 현수 감기자 그물이 서서히 물면에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물속에서 방금 잡힌 도루메기들이 요동

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은 《X-만-19》호 어로공들은 만선을 보면 휘날리며 하루장을 향해 출발하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오직 만선의 귀향길만을 아는 그들처럼 결사관철의 항로 따라 전속으로 내달리겠습니다.》

어로전투에서의 실적도 귀중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값지고 고귀한것은 바로 이들의 마음속에 당정책결사관철의 신념과 의지가 강렬하게 자리잡고 자리잡은 바로 그것이었다.

《X-만-19》호가 조루를 가까이하고있었다. 때는 귀향길에 있었지만 어로공들의 마음은 벌써 새 출항길에 올라와 있었다. 프랑크사나를 바다를 순간도 비울수는 전두파지로 여기고 오늘날도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울려가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처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춘성



## 정진수산사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단위물에서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기조하여 기상예보, 해상지도, 물고기 가공기계와 설비 및 전력감시체계, 배수구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며 사할 배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기 어로전투를 벌려 물고기대풍을 안아오야 합니다.》

동해의 남바다에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이 날마다 거두고 있는 거대한 물고기잡이성적은 온 나라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로 감동시키는 위훈장처럼 요망하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정진수산사업소 일꾼들과 어로공들도 소기의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물고기잡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일꾼들부터 자신들이 직접 물고기를 잡는 선장, 어로공이 되어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지금 홍원앞바다에서 진행되는 도루메기잡이전투를 현지에서 승선지도하고있는 조급당일꾼과 기사장을 비롯한 사업소 책임일꾼들이 중점물 쫓기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전투에 동원된 모든 배들이 전기간 바다를 비우지 말고 만가동하는 본체와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는 본체이다.

사실 이번 전투에 참가한 배들 중 2척은 보수가 갖 끝난 상태였고 물고기잡이실적도 그리 높지 않았고 첨단과학기술을

지나 10월말 현장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전투에서 그 배들을 제외시키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업소일꾼들은 이번 전투를 단숨에 성공하는 몇척의 배들이 참가하여 물고기잡이성적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인민군대 어로전사들은 불리한 기조조건에 이항조건에 구애없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난관을 뚫고헤쳐 나날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고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이룩한 투쟁정신을 결사관철의 정신을 따라배우는데는 뒤떨어진 배가 있을수 없다.

어장마다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당의 뜻을 받들고 사업소의 배들모두가 출항하여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높이 울려야 한다는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그러하여 이번 전투를 계기로 배들의 물고기잡이능력을 제고하기로 하였으며 함께 전투에 참가한 실적이 높은 배들의 정형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였는것이다. 사업소일꾼들은 2척의 배에 현대적 설비를 비롯하여 각종 수리구비와 충분히 마련해놓은 예비부속품들로 재기되는 간단한 고장을 해상에서 즉시 치하여 모든 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로전투에서 기본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것이므로 배에서 배로 고기배마다에 예비어구

## 현지 보도

하늘의 별들이 통째로 내려앉은듯 수많은 고기배마다에서 발산하는 불빛으로 하여 마치 별의 세계에 들어선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어가는 통진앞바다

어둠을 둘러보아도 볼아있지 않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밝게 보이는 한척의 큰 배가 있다. 그것이 바로 홍원수산사업소 가공모선 《아달산》호라고 칭하는 수산사업소 작업선 《정진-08-101》호 선장이 일러준다. 수심의 물고기와 함께 만선의 기쁨도 가득 실은 《정진-08-101》호에 오른 우리들의 눈앞에 《아달산》호의 지레가 점점 뚜렷이 안겨온다. 마지막 비두어 공실 떠있는 실을 발명해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불굴의 의지를 안고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하였습니다.》

《정진-08-101》호가 《아달산》호쪽으로 다가가자 확실히 수산정책관철의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101호, 101호, 배를 바짝 붙여라. 곧 물고기부림작업을 시작하였다.》

잠시후 우리는 《정진-08-101》호에서 《아달산》호로 자리를 옮겼다. 바다에서의 어로전투도 치열하지만 물고기부림전투 또한 그 예외가 없다. 잠은 물고기를 한 시바며 부러워하고 고기배들의 작업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고 가공되는 물고기들의 선도도 충분히

## 잠들 줄 모르는 중심어장의 밤

### 홍원수산사업소 가공모선 《아달산》호에서

보장할수 있게때문이다. 작업선이 와닿자마자 육중한 물고기수송판을 기증하게 때때로 《정진-08-101》호의 갑판으로 내려보내는 《아달산》호 선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물고기부림전투의 첫 공정을 맡아 항상 혁신자로 이름떨치고있는 오현철, 양승호, 김형일, 김진호동무들이다. 그들에게 뒤집새라 《정진-08-101》호의 어로공들도 물고기수송판을 받아 물고기가 가득한 선상에 꽂아넣는다.

《아, 빨라빨라 다그치자구. 그 배야 또 한바탕 물고기를 잡지.》 《걱정말라요. 오늘은 어저보다 부림시간을 더 단축할테니...》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 힘을 모아 제비새로 일꾼을 놀리는 《정진-08-101》호 어로공들의 모습도 볼수 있는 일이다. 그들이 준비작업을 끝내자 《아달산》호에 설치된 물고기부림설비가 동전통 돌음을 울리며 가동하기 시작한다. 울레를 울리며 물고기부림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 제작, 설치하였는 설비이다.

양승호 동무는 땀을 흘리며 물고기배의 선상에 있는 물고기들을 직접 건 뜰 물고기수송판을 통해 죽죽 빨아올린다. 순간 막혔던 물목이 미친것과도 같이 수송판의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자 《아달산》호 갑판에 있는 끝없는 물고기들이랑으로 물고기가 가득차오른다.

사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시고 저렇게 작업조별로 더욱 맹렬한 경쟁을 벌이고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한 《아달산》호의 당일꾼인 경명호동무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가공현장을 돌아보는 몇분 안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멍들고들었다 물고기가 들어 담기고 판매하여 실려 급동공정으로 옮겨진다.

오늘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기수가 될 줄같은 일남안고 고대를 마친 우리엔 스스로 다음고대를 또의 작업을 계속하며 달은 파세를 넘쳐 수행하는 혁신자가 어찌 리원회동무뿐이겠는가. 김영민, 김영민, 김형준, 정국동무들과 원성일, 홍상기, 마영근, 원철호동무들도 경쟁에서 양보를 모르고 항상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있고 동행한 일군이 우리에게 키

떨한다. 갑판에서 물고기부림작업이 끝나자 기계출력공정현물동무와 물고기부림설비 운전공인 김경일동무도 가공작업에 함께한다. 거세차게 떠오르는 세찬혁명의 불길속에 멍들 1작업반 전투원들은 달겨진 작업부채를 짧은 시간에 갚아낸다.

또다시 다른 고기배가 《아달산》호에 외항고 물고기부림작업이 계속된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간다. 하지만 조국의 바다에서 새로운 어로인화를 창조하고있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의 투쟁기쁨을 따라배우려는 이들의 열정이 비쳤는가 《아달산》호의 갑판우를 밝히는 불빛은 혁신의 불길, 위훈의 불길마냥 뜨겁게 안겨온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신춘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꾼들은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자신 책임으로 책임진다라는 방침에서 많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어 어느 사업에서나 첫발을 내딛는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용감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일꾼들이 당정책관철에 더중을 힘있게 불리여키자면 본격적인 전투에 진입하기때 앞서 시인들은 사정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최근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20여일동안에 놀라운 물고기잡이성적을 거두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바로 일꾼들이 대오의 앞장서 물고기잡이전투를 위한 사정준비를 철저히 하고있다는 사실이 요구되었다.

이전투면에서 올해 도루메기잡이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한 원신수산사업소 일꾼들의 사업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 사전준비와 물고기잡이실적

### 원신수산사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이룩 일꾼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단위에 맡겨진 전투과제는 자기자신적으로 책임진다라는 자세와 힘잡이라고 볼수 있다. 본격적인 물고기잡이전투에 진입하기 전에 물고기배들에 어구들을 충분히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을 방문있게 진행한것이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다른 수산사업소들도 그리하지만 단위의 수백hp고기배들도 번바다물고기잡이에 나갔다가 지난 10월초에 물고기가 사할 때부터 도루메기잡이전투에 배들을 정비하고 또 어구들을 보수, 보충하자면 적지 않은 기일이 요구되었다.

사업소일꾼들은 수백hp고기배들이 번바다에서 여러차례 나가있는 기간 앞으로 새 전두 진입을 위해 필요한 자체보장

을 확고히 선행시켰다. 다시말하여 배 고기배들의 그물을 보수하거나 새로 뜨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충분히 마련해놓은 것이었다.

이와 함께 번바다물고기잡이에서 배들이 돌아온 후에는 해당 배들의 선원들이 아니라 사업소의 기사 트랙터를 총동원하여 그물보수도 하고 또 새로 그물을 뜨기도 하도록 조직사업을 펴내었다. 그렇게 하니 도루메기잡이전투 전에 배 작업선들은 고기그물이 어머조씩 갖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사전준비는 사업소의 어로공들이 남바다에서 벌어지는 물고기잡이전투에 어떤 정황에 맞닥뜨려도 일로전투를 중단없이 벌리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주목되는것은 물고기배마다에서 여러차례 나가있는 기간 앞으로 새 전두 진입을 위해 필요한 자체보장

가 하는것을 다스림 보여주고 있다.

물고기배 많이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잡은 물고기를 제대로 부러우고 가공을 따라배우는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룩 수산사업소 일꾼들은 물고기부림시간을 단축하고 가공도 제때에 하기 위한 준비사업에도 따라배웠다. 수산정책관들의 지도밑에 이룩 일꾼들은 물고기부림시간을 단축하고 가공도 제때에 하기 위한 준비사업에도 따라배웠다. 수산정책관들의 지도밑에 이룩 일꾼들은 물고기부림시간을 단축하고 가공도 제때에 하기 위한 준비사업에도 따라배웠다.

사업소가 올해 도루메기잡이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한데는 대오의 양양된 정진력과 함께 일꾼들의 이러한 사전조직사업이 큰 작용을 하였다. 지금 사업소일꾼들과 어로공들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배우려는 투쟁정신을 더욱 힘있게 발휘하고있다. 때로가자 신천 열

## 단상 《출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어로공들은 힘들이고 배로 추진기가 되고 그들이 되어 서로 당정책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혁명적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때문에 같은 어항조건에서도 많은 물고기를 잡아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물고기잡이로 밤을 밝히고 새날을 맞이한 홍원앞바다에 아침해가 솟아오른다. 《출항!》 신성한 아침공기를 깨워주고 기계들에서 힘차게 울리는 구령소리... 로우를 떠나는 배들에서 너무나도 세차게 울려나오는 말이 들려온다. 그 말이 새로운 의미로 들려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동해전역에 떠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

적용의 시대를 메사하고 범상히 여겨오던 모든것을 미상한 의미로 떠올리는 법이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어로공들은 힘들이고 배로 추진기가 되고 그들이 되어 서로 당정책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혁명적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때문에 같은 어항조건에서도 많은 물고기를 잡아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물고기잡이로 밤을 밝히고 새날을 맞이한 홍원앞바다에 아침해가 솟아오른다. 《출항!》 신성한 아침공기를 깨워주고 기계들에서 힘차게 울리는 구령소리... 로우를 떠나는 배들에서 너무나도 세차게 울려나오는 말이 들려온다. 그 말이 새로운 의미로 들려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동해전역에 떠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

물 안고 남바다로 내달리는것이 바로 이들의 투쟁분파와 기절이다.

그러하기에 인민군대 어로전사들이 지닌 불굴의 투쟁정신은 《출항!》과 《만선!》이라는 두 단어를 땀수 있는 하나의 의미로 이어주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출항!》 동해바다에 메아리치는 이 힘찬 구령은 본 인민군대 어로전사들의 투쟁기쁨을 따라배워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높이 울려내는 온 나라 전체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의 불꽃처럼이다.

본사기자

# 혁명의 만년재보를 위해 바쳐가는 순결한 마음

지금으로부터 네백년 광명성절이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명도업적의 아로새겨져 있는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참관하는 사람들이갈래는 총괄평, 혁명투쟁을 비롯한 평안남도김철소 입군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후적 그리움을 안고 사적지를 찾은 그들의 가슴가슴은 승평한 격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너무도 소박하고 수수한 곳에 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민족의 내력막걸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최고사령부 작전대령에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진법, 평군술을 익히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내어나가신 원대한 뜻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스승의 깃들여있는 귀중한 사적지들과 사적지물... 깊은 감동속에 사적지참관을 마친 그들의 가슴가슴에서는 하나의 지향은 날라올랐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과 평도의 혁명성을 깊이 빛내이기에 백옥같은 총정의 마음을 바쳐갈 같은 명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해 달랑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사상과 명도업적과 명심으로 받들고 당중앙의 두리에 사상의적외로, 도덕의리적으로 철벽같이 뚫리며 평범한 날애나 준인한

평안남도 김철소

날애나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영원히 함께 하여야 합니다.》

사적지참관을 마치고 돌아온 날 당조직을 찾은 총괄평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참관하면서 보니 우리가 지금껏 얼마나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명도업적이 스승이 아로새겨진 사적지를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하는데 저희들의 작은 힘이나마 정교리 바쳐가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 바쳐가는 그들의 헌신과 지성은 날과 날을 이어 끊이지 않았다. 부서의 모든 성원들이 말은 사업으로 바쁜 몸이었지만 국가직업과 기념일마다 어김없이 사적지를 찾은 채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어 깊이 빛내이기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마련하여 사적지로 보내주곤 하였다.

어느날 사적지입군은 어느때 없이 일행이 붙어난 평안남도 김철소 입군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영문을 몰라하는 그에게 총괄평동무가 사연을 이야기했다.

《이번 참관된 부시성원들의 가족까지 모두 왔습니다.

도검찰소

우리 수령님들을 더 잘 받들어 모시는 사업에 자기들의 지성도 합쳐가겠다고 이렇게...》

나머진 소년단원으로부터 머리에 흰머리가 내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적지관리와 사적물보존에 절실히 필요한 관리도 구를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온 김정애 사적지입군들은 감동을 금치 못했다.

두려진 정중절을 맞으며 정안남도김철소 입군들이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찾았을 때였다. 그날 사적지를 참관하는 과정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사적지관리구역에 대한 개선보수공사와 함께 혁명사적관을 새로 건설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참관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온 부서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이미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소요량을 료해한 총괄평동무는 자신부리가 지인사업을 앞장질 걸음을 다시면서 해당한 조직사업을 마쳐내었다. 부서의 전체 성원들이 펼쳐나선 가사적사적관건설을 적극 떠맡아주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때 겨울 어느날 자정도 넘은 깊은 밤 정성에서 양력공공으로 뻗은 도로로 한대의 대형화물차 통자가 눈보라를 뚫고 달리고있었다. 차에는 총괄평, 혁명투쟁을 비롯한 평안남도김철소 입군

찰소

들이 타고있었다.

사업의 여가시간이면 늘 사적관심에 필요했기 무엇인가를 알아보곤 하던 그들은 많은 밤의 숲이 요원하다는 것을 알자 그날로 먼길을 떠났던 것이다.

눈보라가 잦은 다음 새벽에 길을 떠나려고 정교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말했다.

《이번 장수위축에서도 사적관 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해 밤잠을 잊다싶이 일하는 군인건설자들이 지금 같이 없어 인과와 화하고있는데 어떻게 발전상을 짚수 있었습니까. 오늘 밤과 평일 오전중으로 무조건 숲을 마련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혁명사적관건설에 필요한 자재때문에 수백리 밖길을 달려온 사연을 알게 된 해당 지역 입군들과 주민들이 너도나도 바쳐나섰다. 그들은 머리까지 치는 눈길을 헤치며 산속을 돌아 무려 5리나 되는 깊은 땅의 숲을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불리한 조건에서라도 건설을 다그쳐 끝내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지난해 6월 9일 당보를 받아들인 평안남도김철소 입군들의 가슴가슴은 커다란 격정으로 설레었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승리축하의 열기를 내다보시고 부강조국건설의 웅대한 실개도를 펼쳐서 서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평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대승혁명사적지를

일군들

찾은 평안남도김철소 입군인 게 총괄평은 사적지구역안의 밤나무숲을 보며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이제는 반세기 가 훨씬 넘은 오랜 밤나무들이었건만.

다음날 안해와 함께 다시 사적지를 찾은 그는 수심그루의 밤나무를 정성껏 보았다. 그렇게 시작된 헌신과 지성의 발걸음은 10여년세월 언제 한번도 쉬이지 않았다.

그날 새로 심은 밤나무가 무려 8000그루에 달한다고 하니 사적지를 더 잘 꾸리고 사적물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바친 정성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계몽사업과 함께 부서의 전체 성원들도 대승혁명사적관건설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혁명투쟁을 견결히 옹호하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자기들의 순결한 마음을 아낌없이 바쳤다.

오늘 평안남도김철소 입군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은 뜻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심장으로 아로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길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아낌없이 바쳐가겠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진행되던 지난 2월말 평정시 태풍주의

대중운동의 불길높이

충진수지일용총합과 헌신유리명공정, 헌신정공생합성총합에서 10만 8280여명의 귀공, 100여명의 무리까지 마음 졸임 기간에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장년구역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적운동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단위들의 입군들과 총괄평들을 적극 내세워 주고 그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완성시켜 진행하여 이 운동에 대승적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기도록 하였다.

또한 구역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책임직업이 모이는 회의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200일전투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평도연전단위들의 대한 참관사업, 모범적인 단위들에 대한 특화점검을 단행하여 보여주는 사업과 일반단위와 평도연전단위들의 실례를 직관물로 제시하여 자각을 주고 발달하게 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평정시일용총합을 일으키는 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신진연안수선한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명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3대혁명붉은기적운동의 중심사업으로 돌리려고 평정시일용총합의 부부장이신 입군들과 평정시일용총합의 행정, 근로단체책임직업이 평도연전단위들을 담당하도록

총정시

어느 한 내가를 오래동안 오르내리며 주변지형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철소 책임직업인 김철관, 리순호, 김명수동무들이었다.

지난 시기 정밀한 내물이 아니라 그곳 주민들과 학생들이 왕복 10여리길을 예뻐다니는 사실을 두고 마음씨온 그들은 이번 전투기간 다리건설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헌에서 공사조직과 관련된 적의들은 협의의를 진행했었다. 며칠후 온 김철소가 펼쳐나선 가운데 다리건설전투가 시작되었다.

아직 추위가 제 풀리지 않은 곳은 날씨가 온 인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땅을 보게 하기 위해 모두가 밤잠을 잊고 전투를 벌리는 나날 그들까지 달려나와 선의있는 지원사업으로 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었다. 혁명공사가 시작되자 불과 수일만에 풍크리드라리가 빈틈하게 일떠서는 성과가 이뤄졌다.

이튿날 아침.

인민의 리익과 권의를 최우선, 절대사리에 대한 높은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고있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지난 불타고난 헌신적의 수백세대 주민들이 먹는물까지도 모르고 생활하도록 한것과 총정시일용총합의 70일전투가 진행되던 지난 2월말 평정시 태풍주의

찾아올수 있다.

내제인이 이곳 김철소 책임직업인 김철관으로부터 평정시 구원동에서 사는 백수집사의 주민들이 정밀한 내로 실정비에 비가 새어 애로를 느끼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내고 많은 같이 하였지만 대중이 마음속고충을 겪는 문제가 어떤것인가를 미처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평정시 김철소입군들이 모수사업을 맡아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기 위해 자신부리가 앞장서 서서 대중을 이끌었다.

얼마안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평정시일용총합을 추진한 김철관에게서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명도업적을 깊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더욱같은 총정의 마음을 바쳐가자고있는 평안남도김철소 입군들의 소망을 료해하시고는 내려가 다리도록 해주어서는 그나온 운명을 배려해주셨었다.

그 영광, 그 은정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이곳 입군들은 절대위업적의 헌신에 더 잘 만들어오시며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본시기자 리 남 호

##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 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녀성대표단들을 위한 연회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녀성대표단들을 위하여 마련해주신 연회가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승화한 뜻을 이어서 주체적녀성운동의 최전선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정다감한 총정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연회에는 남주현 중앙상업위원회 부위원장 단장으로서는 제일분조선민주녀성동맹 대표단, 리순남 제중조선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최전선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정다감한 총정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연회에서는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해 달랑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사상과 명도업적과 명심으로 받들고 당중앙의 두리에 사상의적외로, 도덕의리적으로 철벽같이 뚫리며 평범한 날애나 준인한

## 대중운동의 불길높이 총공격전을 더욱 드세하게

평도업적단위들이 앞장서도록 밀어주고있는 각지 당조직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단위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계속 앞장서 나가고도록 적극 밀어주고 총괄평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적운동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단위들의 입군들과 총괄평들을 적극 내세워 주고 그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완성시켜 진행하여 이 운동에 대승적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기도록 하였다.》

장년구역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명도업적단위들과 중요전투현장들에 방송선전차와 기동예선선동대, 선전선전차와 기동예선선동대, 선전선전차와 기동예선선동대를 집중적으로 내보내어 침입식정지사업을 공격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또한, 군인위원회 3대혁명붉은기적운동을 담당할 입군들과 도급기적단위들의 입군들로 200일전투 목표를 8월말까지 앞당겨 끝낸 선전선전차와 기동예선선동대, 선전선전차와 기동예선선동대, 선전선전차와 기동예선선동대를 대량으로 내보내어 침입식정지사업을 공격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또한, 군인위원회 3대혁명붉은기적운동을 담당할 입군들과 도급기적단위들의 입군들로 200일전투 목표를 8월말까지 앞당겨 끝낸 선전선전차와 기동예선선동대, 선전선전차와 기동예선선동대, 선전선전차와 기동예선선동대를 대량으로 내보내어 침입식정지사업을 공격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또한, 군인위원회 3대혁명붉은기적운동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녀성일군대표단 평양 시내 여러곳 참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녀성일군대표단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 평성청년경기장에서 첫 체육경기 진행

당의 은정속에 평안남도인의 청년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개건된 평성경기장이 평성청년경기장으로 명명되고 첫 체육경기가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언을 받들고 당의 일군들과 청년들은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경기장을 개건할 높은 목표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밤과 밤이 다녔던 긴장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도청년동맹위원회는 제일 어려운 경기장바닥기초공사를 맡아 2개월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와닥타 해체하고 목상주로의 포장과 경기장내외부미장공사

## 북변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무산군편의 봉사관리소에서

당의 전투적소호를 높이 받들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경전을 벌려 북변땅에서 진취적부의 기적을 창조한 인민군장병들과 총괄평들의 위훈속에는 그들을 북변땅으로 지원한 피해지역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갈라갈라 깃들여있다.

천으로 만으로 헤아릴수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이는 말려진 살림집전전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북부전선용사들을 위해 뜨거운 전정을 바친 무산군편의봉사관리소 일군들과 총괄평들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북쪽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 9월 중순 당의 전투적소호를 받아안은 이곳 관리소의 김철관, 신인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총괄평들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회의의 문에는 두가지였다. 하나는 살림집공사를 비롯하여 관리소앞에 말려진 작업과제를 해에 원만히 수행하는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본선일군들에 대한 군인들과 총괄평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더 활발히 벌리는것이였다.

풀은 힘에 부친 일이였다. 하지만 함북도 북부미장부전선에서 진취적부의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 온 나라 청년들의 마음과 마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고있는 때를 우리는 자기들이 과연 어떻게 살피 부양하여야 하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중무들, 우리는 북변땅의 주인입니다. 모두가 두레, 세대의 일감을 안고 뛰고 뛰어야 하니 우리 당의 사명에 꼭 보답합시다.》

관리소일군의 호소에 모든 총괄평들이 호응하였다. 이렇게 되어 이곳 총괄평들은 낮에는 모두가 많은 대승공사장에 나가 밤을 즐기고 저녁과 밤이면 건설자료를 대상으로 리마와 피복수리를 비롯한 봉사활동을 벌리게 되었다.

그러면 어느날 로동자 안상복동무가 당조직을 찾았다. 수선리길을 달리는 적지 않은 분기자들이 고장나 살림집공사에서 애를 먹고있는데 차수리를 대담하게 전개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총무한 차수리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인지라 신인철동무는 그의 제기를 적극 지지해주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이번 인 우리들이 도와주는것은 웅대한 일이지요. 우리도 힘껏 밀어주겠다. 한번 본래있게 내버려 합시다.》

그때부터 안상복동무는 그 어떤 불고 비까지 않고 공사에 동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바치게 되었다. 어느날 공사장을 찾았던 그는 서있는 풀처럼 보게 되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여기서 풀은 요구하고있던 때였다.

온전수복부가 고장났다는 것이었다. 안상복동무는 풍부한 경험으로 그 자리에서 차가 멈춰

## 신의주시 민포동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모처럼 같은 해국일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외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하라 합니다.》

얼마안지 우리는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부른 정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도연전단위들에 대한 참관사업, 모범적인 단위들에 대한 특화점검을 단행하여 보여주는 사업과 일반단위와 평도연전단위들의 실례를 직관물로 제시하여 자각을 주고 발달하게 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평정시일용총합을 일으키는 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신진연안수선한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명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3대혁명붉은기적운동의 중심사업으로 돌리려고 평정시일용총합의 부부장이신 입군들과 평정시일용총합의 행정, 근로단체책임직업이 평도연전단위들을 담당하도록

좋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하며

동초급녀맹위원회 위원장 리순호동무는 우리에 대해 부러워하는 원군일제를 내놓았다. 그 갈매기에는 지난 10년동안 사회와 정당을 위한 좋은일가운통을 힘있게 벌려온 이곳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모신것은 애국의 마음 그대로 이루어졌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이곳 초급녀맹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게 된 리순호동무는 녀맹원들을 취리하기 위해 평정시일용총합을 힘있게 벌리고가는 역군들을 준비시킬 깊은 결의를 다지었다. 당조직의 지도 밑에 모든 녀맹원들이 인민군대원으로서와 사회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조직적사업을 신속하게 하고있었다.

본회의 녀맹원들속에서 집집을 많이 기르기 위한 사회주의 경이 힘있게 벌어졌다.

도끼, 닭, 오리 등 집짐승기르기가 초급녀맹위원회 힘있게 진행되자 그 마리수는 늘어났다.

본시기자 송 창 훈

# 우리의 핵무력강화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압살책동에 대처한 정당당당한 자위적 선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이후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시책과 핵위협공갈에 맞서 미제와의 전면적결전에 나선 때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국은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비분을 이겨내며 수평의 유혹관철전에 펼쳐나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이 기회에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악랄하게 행동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전제없이 무분별

### 1. 정치적인압살과 제도붕괴를 노린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책동

미국은 민족의 대국상적주 2012년부터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제도를 거이로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로골적으로 추구하였다.

미국의 고위층출중에서 우리의 정권과 제도, 정책을 풍문연기 부정하는 말발들이 끼리끼리되어 이루어졌으며 지어 오바마대통령이 직접 세계의 면전에 나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해 악랄한 비방공세를 일삼았다.

미국의 반공화국행동의 엄중성은 그것이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감히 어찌해볼려는 극도로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단계에서 진행되었다는데 있다.

오바마행정부가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비방공세를 일삼다 못해 감히 최고존엄을 걸고놓는 현주에 용서할수 없는 죄악중의 죄악이다. 이것은 오바마행정부가 내는 《연락적대내》정책이라는것이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이며 강도적인 전략적압살책이라는것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벌려온 반공화국 《인권》모략수들은 이 시기에 와서 우리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야망을 실현에 옮기는 무분별한 시정에서 일었다.

나중에 미국은 초보적인 국제법적 원칙은 물론 초대국의 체면마저 완전히 꿰뚫고 다른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그 급수를 낮추는것으로 저들의 대조선압박수동에 합세할것을 구걸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미국이 강행한 우리에게 대한 전대미문의 정치적인대행위는 다음의 몇가지 일지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 2012년 3월 25일 오바마가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를 비난하면서 《고립》에 대해 역설

- 2012년 6월 미국무성 북조선 인권특사가 반공화국보도단체들에게 대한 자금제공 공개

- 2012년 8월 16일 오바마가 《북조선인권법제정안》에 서명

-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미국무성이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 《인권보고서》, 《국제재판소유에 관한 보고서》, 《인신매매보고서》 등을 발표하면서 허위날조된 자료들도 우리 공화국을 집중적으로 비난

- 2014년 1월 17일 오바마가

하게 강행추진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책과 핵위협공갈은 우리의 용담하고도 정정당당한 자위적대응을 초래하였으며 풍당에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참예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여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도 머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여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도 머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여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도 머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여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도 머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여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도 머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여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도 머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여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도 머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여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도 머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여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도 머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여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도 머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여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도 머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고의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여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도 머민 미국의 범죄적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인권상황》을 의제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강행

- 2015년 1월 22일 오바마가 인 러블에서 우리의 《공포》에 대하여 떠들며 악담

- 2015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우방관 케리가 남조선행각시 우리 지도부를 걸고들며 《인권을 무분별하게 무시》한다느니, 《가장 끔찍한 실례》라느니 하고 망발

- 2015년 12월 10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직을 악용하여 우리의 《인권상황》을 리사회에 상징론의

- 2016년 2월 18일 오바마가 우리 내부와회를 위한 실리론과 《인권》공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 대북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서명

- 2016년 7월 6일 미국무성이 《2016년 대북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따라 우리를 악랄하게 비난하는 보고서 발표,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걸고들여 공격을 강행

- 2016년 9월 20일 오바마가 유엔총회 제71차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대해 《불모지》요 뉘우 하고 악담

- 2016년 10월 12일 미국무성 통이사이 및 행정양분제담당 차관보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털뜯으며 망발

- 2016년 10월 28일 미국무성 부장관이 남조선행각시 우리 공화국 정권에 대해 《무모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실시》한다고 걸고들며 악담

- 2014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미국의 사측에게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이 강압채택

- 2014년 12월 22일 우리의

《인권상황》을 의제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강행

- 2015년 1월 22일 오바마가 인 러블에서 우리의 《공포》에 대하여 떠들며 악담

- 2015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우방관 케리가 남조선행각시 우리 지도부를 걸고들며 《인권을 무분별하게 무시》한다느니, 《가장 끔찍한 실례》라느니 하고 망발

- 2015년 12월 10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직을 악용하여 우리의 《인권상황》을 리사회에 상징론의

- 2016년 2월 18일 오바마가 우리 내부와회를 위한 실리론과 《인권》공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 대북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서명

- 2016년 7월 6일 미국무성이 《2016년 대북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따라 우리를 악랄하게 비난하는 보고서 발표,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걸고들여 공격을 강행

- 2016년 9월 20일 오바마가 유엔총회 제71차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대해 《불모지》요 뉘우 하고 악담

- 2016년 10월 12일 미국무성 통이사이 및 행정양분제담당 차관보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털뜯으며 망발

- 2016년 10월 28일 미국무성 부장관이 남조선행각시 우리 공화국 정권에 대해 《무모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실시》한다고 걸고들며 악담

- 2014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미국의 사측에게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이 강압채택

- 2014년 12월 22일 우리의

《인권상황》을 의제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강행

- 2015년 1월 22일 오바마가 인 러블에서 우리의 《공포》에 대하여 떠들며 악담

- 2015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우방관 케리가 남조선행각시 우리 지도부를 걸고들며 《인권을 무분별하게 무시》한다느니, 《가장 끔찍한 실례》라느니 하고 망발

- 2015년 12월 10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직을 악용하여 우리의 《인권상황》을 리사회에 상징론의

- 2016년 2월 18일 오바마가 우리 내부와회를 위한 실리론과 《인권》공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 대북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서명

- 2016년 7월 6일 미국무성이 《2016년 대북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따라 우리를 악랄하게 비난하는 보고서 발표,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걸고들여 공격을 강행

- 2016년 9월 20일 오바마가 유엔총회 제71차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대해 《불모지》요 뉘우 하고 악담

- 2016년 10월 12일 미국무성 통이사이 및 행정양분제담당 차관보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털뜯으며 망발

- 2016년 10월 28일 미국무성 부장관이 남조선행각시 우리 공화국 정권에 대해 《무모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실시》한다고 걸고들며 악담

- 2014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미국의 사측에게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이 강압채택

- 2014년 12월 22일 우리의

《인권상황》을 의제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강행

- 2015년 1월 22일 오바마가 인 러블에서 우리의 《공포》에 대하여 떠들며 악담

- 2015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우방관 케리가 남조선행각시 우리 지도부를 걸고들며 《인권을 무분별하게 무시》한다느니, 《가장 끔찍한 실례》라느니 하고 망발

- 2015년 12월 10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직을 악용하여 우리의 《인권상황》을 리사회에 상징론의

- 2016년 2월 18일 오바마가 우리 내부와회를 위한 실리론과 《인권》공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 대북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서명

- 2016년 7월 6일 미국무성이 《2016년 대북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따라 우리를 악랄하게 비난하는 보고서 발표,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걸고들여 공격을 강행

- 2016년 9월 20일 오바마가 유엔총회 제71차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대해 《불모지》요 뉘우 하고 악담

- 2016년 10월 12일 미국무성 통이사이 및 행정양분제담당 차관보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털뜯으며 망발

- 2016년 10월 28일 미국무성 부장관이 남조선행각시 우리 공화국 정권에 대해 《무모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실시》한다고 걸고들며 악담

- 2014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미국의 사측에게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이 강압채택

- 2014년 12월 22일 우리의

《인권상황》을 의제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강행

- 2015년 1월 22일 오바마가 인 러블에서 우리의 《공포》에 대하여 떠들며 악담

- 2015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우방관 케리가 남조선행각시 우리 지도부를 걸고들며 《인권을 무분별하게 무시》한다느니, 《가장 끔찍한 실례》라느니 하고 망발

- 2015년 12월 10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직을 악용하여 우리의 《인권상황》을 리사회에 상징론의

- 2016년 2월 18일 오바마가 우리 내부와회를 위한 실리론과 《인권》공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 대북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서명

- 2016년 7월 6일 미국무성이 《2016년 대북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따라 우리를 악랄하게 비난하는 보고서 발표,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걸고들여 공격을 강행

- 2016년 9월 20일 오바마가 유엔총회 제71차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대해 《불모지》요 뉘우 하고 악담

- 2016년 10월 12일 미국무성 통이사이 및 행정양분제담당 차관보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털뜯으며 망발

- 2016년 10월 28일 미국무성 부장관이 남조선행각시 우리 공화국 정권에 대해 《무모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실시》한다고 걸고들며 악담

- 2014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미국의 사측에게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이 강압채택

- 2014년 12월 22일 우리의

### 2. 위험천만한 군사적대행위와 핵 위협 공갈의 극대화

지난 5년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하려는 기도를 감시하고 드러내며 우리의 대한 군사적위협을 고속으로 더욱 증대시켜왔다.

미국은 해마다 진행하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의 규모와 강도를 끊임없이 높이며 조선반도에 핵전쟁법발적전의 초진장상태를 조성하여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저해하였다.

미국이 남조선과피들과 함께 벌려놓고있는 대포대포 연방공화국연습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단 《오호라》라든 2012년에는 미군참가병력이 2 100명이었다면 2013년에는 3 500명, 2014년에는 5 200명, 2015년에는 8 600명으로 체계적으로 늘어났으며 2016년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는 2만 7 000명의 미군이 참가하였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도 미국은 《유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 《맥스 썬더》 연방공군전투연습, 《엑스플로》 합동군사연습, 《엠펙》 다국적해상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연방해상사령관, 특수연습훈련, 합동실사격 등 각종 명목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을 해마다 40여차례나 벌여놓으면서 여기에 50여만 명의 병력을 동원시켜왔다.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쟁연습은 비단 그 규모만 늘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성격과 목적, 내용이 있어서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도발적인 광경을 띠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야욕에 사로잡혀 각종 첨단무장장비들과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 공갈하려고 애용하였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핵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 《니미즈》호, 《로널드 레이건》호, 《론 씨. 스테니스》호, 미제7함대 기함 《블루윙》호, 핵잠수함인 《오호라》호, 《엠펙》호, 《스프레이》호, 《노스캐롤라이너》호, 《미시시피》호, 미사일선양함 《사일버》호, 이지스 구축함 《마이클 미키》호, 《리드》호, 유도무기구축함 《스프루언스》호 등 핵군사력을 조선반도와 주변해역을 끌어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각종 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강행하였다.

또한 우리에게 대한 침략적인 핵선 제타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B-

### 3. 경제적질식을 노린 반인륜적 제재책동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있고 그 악랄함은 또한 세상에 잘 알려졌지만 지난 5년간 우리 공화국을 집시시키고려고 고집하고 강행된 제재책동은 참으로 잔인미분하였었다.

미국은 경제제재를 대조선적대시책실현의 기본수단의 하나로 삼고 온갖 비합적이고 잔악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집시시키고려고 미쳐달라졌다.

미국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합법적 권리와 평화적우주개발과 자위적 핵억제력강화를 걸고들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동용하여 남조선에 대한 《제재책동》들을 조작해내는데 열을 올렸다.

미국이 추종책동들을 규합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일삼고있는 반공화국 《제재책동》들은 한결같이

미국은 경제제재를 대조선적대시책실현의 기본수단의 하나로 삼고 온갖 비합적이고 잔악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집시시키고려고 미쳐달라졌다.

미국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합법적 권리와 평화적우주개발과 자위적 핵억제력강화를 걸고들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동용하여 남조선에 대한 《제재책동》들을 조작해내는데 열을 올렸다.

미국이 추종책동들을 규합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일삼고있는 반공화국 《제재책동》들은 한결같이

미국은 경제제재를 대조선적대시책실현의 기본수단의 하나로 삼고 온갖 비합적이고 잔악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집시시키고려고 미쳐달라졌다.

### 4. 문화적공갈과 인권탄압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 5. 문화적공갈과 인권탄압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 6. 문화적공갈과 인권탄압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 7. 문화적공갈과 인권탄압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 8. 문화적공갈과 인권탄압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 9. 문화적공갈과 인권탄압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 10. 문화적공갈과 인권탄압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 11. 문화적공갈과 인권탄압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문화적으로 말살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 인민의 버림을 받은 반역무리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 되돌릴수 없는 청와대망년의 가련한 운명

지금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는 민심의 요구에 불복하며 버티기를 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는 출세길의 목을 치는 청와대인사건과 2차에 걸치는 형식적인 《사과》놀이도 벌이고 수도와 평택에서 피피회에게 기신기신 찾아가 값싼 동정을 구걸하는 비하운 추태도 부러보았다. 하지만 그런 오그람수는 통할수 없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수형상속에서 후유적 거리는 역도를 향해 남조선민심이 쫓겨는 것은 오직 하나 《퇴진》과 《하야》뿐이다. 그들은 이미 거대한 초보집적으로 피피회도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야 말 결사의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뻔뻔스런 기고인도 권력욕이 굼뜬박 박근혜도 아직도 청와대인사건에서 스스로 커리어를 생각을 하지 않고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사선파리 술책에 매달리고있다.

지난 《사과》놀이에서 필요하면 검찰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느니 뭐니 하고 나서며 떨어진 박근혜도 그것이 당장 막두하차 머무른없는 구실을 내내며 《집합조서시기의 연기》를 운운해 나갔다. 이것은 최순실을 대한 기소청에 자기의 죄악이 오르는것을 어떻게 하나 막고 시간을 끌어 최악의 궁지까지 헤어나보려는 교활한 술책으로서 태세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력조차 없는 무지로부 터 출발한 정치사냥기의 탄막마작물부림이다. 박근혜도 아무리 온갖 원모습 수를 쓰며 버티기를 하여도 현 위기를 가시수 없으며 머지않아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수밖에 없다.

최세의 정치학잡문과 특재판이 인간수출인 박근혜를 기어이 퇴진시키고 력사의 준엄한 징벌을 안기고야말려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계기로 인민들의 반박근혜가운이 환화산책류 특

발하고있는 가운데 역도에 대한 지지율은 4%로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 30대의 청년층에서는 그것이 0%로서 아예 평바라에 말라붙고말았다. 이것은 전반적인 남조선민심이 역도에 대한 지지를 잃고있는것을 실증해준다.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부실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정체를 재판하지 못하고 역도에게 지지표를 던진 사람들은 지금 분분과 혐오감을 금치 못하면서 무덤의 손에서 돌아나온 복두까지, 현하의 미물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것으로써 자기의 표를 《부조진 돌려받겠다.》고 한 목소리로 웨치고있다.

오른 남조선정국을 밑뿌리째 뒤 흔들고 있는 반박근혜투쟁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전사회적, 전지적적인 투쟁형식을 띠고있다. 지난 12월 남조선 각지에서 시위를 모인 100만여명의 각계각층 군중이 《박근혜는 항복하라.》, 《너는 쫓겨라.》, 《너는 항복하라.》라는 합성으로 청와대계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데 이어 19일 또다시 남조선전역의 70여개 지역에서 반박근혜시위를 단행한 《대통령하야》에 따라 동시다발적인 대규모초보투쟁이 벌어졌다. 청와대가 지적인 광화문광장을 박근혜역도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의미하는 단두대가 등장하여 각계의 환호를 받았다는 광범한 민심의 배치를 바꾸고 온 땅이 경악에 달한 청와대역의 비극적 종말을 예고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배반의 수형상속이 박근혜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의미하는 단두대가 등장하여 각계의 환호를 받았다는 광범한 민심의 배치를 바꾸고 온 땅이 경악에 달한 청와대역의 비극적 종말을 예고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배반의 수형상속이 박근혜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의미하는 단두대가 등장하여 각계의 환호를 받았다는 광범한 민심의 배치를 바꾸고 온 땅이 경악에 달한 청와대역의 비극적 종말을 예고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배반의 수형상속이 박근혜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의미하는 단두대가 등장하여 각계의 환호를 받았다는 광범한 민심의 배치를 바꾸고 온 땅이 경악에 달한 청와대역의 비극적 종말을 예고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배반의 수형상속이 박근혜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의미하는 단두대가 등장하여 각계의 환호를 받았다는 광범한 민심의 배치를 바꾸고 온 땅이 경악에 달한 청와대역의 비극적 종말을 예고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배반의 수형상속이 박근혜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의미하는 단두대가 등장하여 각계의 환호를 받았다는 광범한 민심의 배치를 바꾸고 온 땅이 경악에 달한 청와대역의 비극적 종말을 예고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배반의 수형상속이 박근혜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의미하는 단두대가 등장하여 각계의 환호를 받았다는 광범한 민심의 배치를 바꾸고 온 땅이 경악에 달한 청와대역의 비극적 종말을 예고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배반의 수형상속이 박근혜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의미하는 단두대가 등장하여 각계의 환호를 받았다는 광범한 민심의 배치를 바꾸고 온 땅이 경악에 달한 청와대역의 비극적 종말을 예고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배반의 수형상속이 박근혜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의미하는 단두대가 등장하여 각계의 환호를 받았다는 광범한 민심의 배치를 바꾸고 온 땅이 경악에 달한 청와대역의 비극적 종말을 예고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배반의 수형상속이 박근혜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의미하는 단두대가 등장하여 각계의 환호를 받았다는 광범한 민심의 배치를 바꾸고 온 땅이 경악에 달한 청와대역의 비극적 종말을 예고해주었다.

# 남조선 각계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규탄, 역도의 즉시 사임을 요구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1550여명의 남조선 각계 단체들이 망명한 박근혜(정권)피피회 상근직원들이 20일 《부실수사라도 공보 인정, (의자사) 박근혜대통령을 즉각 퇴진하라! 검찰의 피피회 부실수사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검찰이 이날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구실로 기소하지 않는데 대해 비판했다. 이로써 박근혜가 중대범죄의 광범이자 피피회로 쇠였으며 국민은 사상 처음으로 최악의 《대통령》이 피피회로서 검찰수사를 받는 지옥을 겪게 되었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성명은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발표는 《헌법》과 제법 바꾸기의 전철》이라고 확언하였다. 검찰이 수사결과에서 세월을 넘어서 권력을 물러진 세력에 계 돈을 빼앗긴 피해자처럼 만들었지만 지난 기간 세월들은 박근혜의 친세력, 반민중정책으로

가장 큰 해악을 받아왔다고 성명은 폭로하였다. 로동자들에 대한 일탈회교와 공공부패 민영화, 성과회교 제도일, 개발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체결, 농민희생, 중소상공인들의 불락, 거대불법 명목으로 국민을 무시하며 강행된 민원관료와 환경파괴 등이 과연 박근혜의 피피회와 어찌 무관하다 할것인가고 성명은 성토하였다. 결국 이번 검찰수사는 《대통령》이 헌법에 있다는 결정적조항을 내리고 피피회를 무마시켜 세월을 넘어서 피피회로 쇠였으며 국민은 사상 처음으로 최악의 《대통령》이 피피회로서 검찰수사를 받는 지옥을 겪게 되었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성명은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발표는 《헌법》과 제법 바꾸기의 전철》이라고 확언하였다. 검찰이 수사결과에서 세월을 넘어서 권력을 물러진 세력에 계 돈을 빼앗긴 피해자처럼 만들었지만 지난 기간 세월들은 박근혜의 친세력, 반민중정책으로

가장 큰 해악을 받아왔다고 성명은 폭로하였다. 로동자들에 대한 일탈회교와 공공부패 민영화, 성과회교 제도일, 개발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체결, 농민희생, 중소상공인들의 불락, 거대불법 명목으로 국민을 무시하며 강행된 민원관료와 환경파괴 등이 과연 박근혜의 피피회와 어찌 무관하다 할것인가고 성명은 성토하였다. 결국 이번 검찰수사는 《대통령》이 헌법에 있다는 결정적조항을 내리고 피피회를 무마시켜 세월을 넘어서 피피회로 쇠였으며 국민은 사상 처음으로 최악의 《대통령》이 피피회로서 검찰수사를 받는 지옥을 겪게 되었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성명은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발표는 《헌법》과 제법 바꾸기의 전철》이라고 확언하였다. 검찰이 수사결과에서 세월을 넘어서 권력을 물러진 세력에 계 돈을 빼앗긴 피해자처럼 만들었지만 지난 기간 세월들은 박근혜의 친세력, 반민중정책으로

가장 큰 해악을 받아왔다고 성명은 폭로하였다. 로동자들에 대한 일탈회교와 공공부패 민영화, 성과회교 제도일, 개발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체결, 농민희생, 중소상공인들의 불락, 거대불법 명목으로 국민을 무시하며 강행된 민원관료와 환경파괴 등이 과연 박근혜의 피피회와 어찌 무관하다 할것인가고 성명은 성토하였다. 결국 이번 검찰수사는 《대통령》이 헌법에 있다는 결정적조항을 내리고 피피회를 무마시켜 세월을 넘어서 피피회로 쇠였으며 국민은 사상 처음으로 최악의 《대통령》이 피피회로서 검찰수사를 받는 지옥을 겪게 되었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성명은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발표는 《헌법》과 제법 바꾸기의 전철》이라고 확언하였다. 검찰이 수사결과에서 세월을 넘어서 권력을 물러진 세력에 계 돈을 빼앗긴 피해자처럼 만들었지만 지난 기간 세월들은 박근혜의 친세력, 반민중정책으로

가장 큰 해악을 받아왔다고 성명은 폭로하였다. 로동자들에 대한 일탈회교와 공공부패 민영화, 성과회교 제도일, 개발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체결, 농민희생, 중소상공인들의 불락, 거대불법 명목으로 국민을 무시하며 강행된 민원관료와 환경파괴 등이 과연 박근혜의 피피회와 어찌 무관하다 할것인가고 성명은 성토하였다. 결국 이번 검찰수사는 《대통령》이 헌법에 있다는 결정적조항을 내리고 피피회를 무마시켜 세월을 넘어서 피피회로 쇠였으며 국민은 사상 처음으로 최악의 《대통령》이 피피회로서 검찰수사를 받는 지옥을 겪게 되었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성명은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발표는 《헌법》과 제법 바꾸기의 전철》이라고 확언하였다. 검찰이 수사결과에서 세월을 넘어서 권력을 물러진 세력에 계 돈을 빼앗긴 피해자처럼 만들었지만 지난 기간 세월들은 박근혜의 친세력, 반민중정책으로

가장 큰 해악을 받아왔다고 성명은 폭로하였다. 로동자들에 대한 일탈회교와 공공부패 민영화, 성과회교 제도일, 개발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체결, 농민희생, 중소상공인들의 불락, 거대불법 명목으로 국민을 무시하며 강행된 민원관료와 환경파괴 등이 과연 박근혜의 피피회와 어찌 무관하다 할것인가고 성명은 성토하였다. 결국 이번 검찰수사는 《대통령》이 헌법에 있다는 결정적조항을 내리고 피피회를 무마시켜 세월을 넘어서 피피회로 쇠였으며 국민은 사상 처음으로 최악의 《대통령》이 피피회로서 검찰수사를 받는 지옥을 겪게 되었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성명은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발표는 《헌법》과 제법 바꾸기의 전철》이라고 확언하였다. 검찰이 수사결과에서 세월을 넘어서 권력을 물러진 세력에 계 돈을 빼앗긴 피해자처럼 만들었지만 지난 기간 세월들은 박근혜의 친세력, 반민중정책으로

가장 큰 해악을 받아왔다고 성명은 폭로하였다. 로동자들에 대한 일탈회교와 공공부패 민영화, 성과회교 제도일, 개발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체결, 농민희생, 중소상공인들의 불락, 거대불법 명목으로 국민을 무시하며 강행된 민원관료와 환경파괴 등이 과연 박근혜의 피피회와 어찌 무관하다 할것인가고 성명은 성토하였다. 결국 이번 검찰수사는 《대통령》이 헌법에 있다는 결정적조항을 내리고 피피회를 무마시켜 세월을 넘어서 피피회로 쇠였으며 국민은 사상 처음으로 최악의 《대통령》이 피피회로서 검찰수사를 받는 지옥을 겪게 되었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성명은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발표는 《헌법》과 제법 바꾸기의 전철》이라고 확언하였다. 검찰이 수사결과에서 세월을 넘어서 권력을 물러진 세력에 계 돈을 빼앗긴 피해자처럼 만들었지만 지난 기간 세월들은 박근혜의 친세력, 반민중정책으로

# 단 평 암흑의 사회상이 비끼 그림

최근 유권자들은 남조선에서의 사람들의 지위를 보여주는 《세금도》라는 그림이 인터넷에 올라온 후 회제거리로 되고있다. 피피회도양으로 된 그림의 뻔 태세에는 최순실이 《무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암흑사처럼 도사리고있다. 그 다음자리는 최순실의 가족과 측근들의것이다. 명칭이 집권자라고 하는 박근혜는 겨우 네번째 자리에 구차스럽게 올라고있다. 그아래로 세월불과 정지인, 행정관 피피회 고졸이 피피회를 이었고 검찰과 부정부패 등은 그 다음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뻔 뻔바라에는 절대대위의 인민대중이 개, 돼지들로 보사되어 시체미치침 썰려있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너도나도 《박근혜와 최순실의 썩만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차피 개, 돼지들.》라고 하면서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에 대한 출판을 려지고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이야말로 부패한 지배세력, 극소수의 특권층이 근로인민들의

단언과 권리를 짓밟으며 재물을 불리는 인민의 분노, 민주의 제지이다. 이런 반정부인사 전막한 무당당이 특권층이 박근혜를 폭주까지 지원 조종하며 오유한 마마함에서 제지코리 날듯 어지럽게 늘어날수 있었고 열배진 청와대역의는 의 황망한 주봉에 날아나온 남조선정국을 유권자들은 암흑세상으로 만들어버렸었다. 예로부터 부자가 하나이면 세 송대가 망한다고 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 하수인들에 의해 개, 돼지 취급당하며 모진 고통을 겪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원한과 분노가 어찌 하늘에 닿지 않았겠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어찌에도 참고 넘어 가면 우리는 스스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돼지가 되는것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반역무리를 정밀하고 사람 못할 세상을 같이일기 위해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단언과 권리를 짓밟으며 재물을 불리는 인민의 분노, 민주의 제지이다. 이런 반정부인사 전막한 무당당이 특권층이 박근혜를 폭주까지 지원 조종하며 오유한 마마함에서 제지코리 날듯 어지럽게 늘어날수 있었고 열배진 청와대역의는 의 황망한 주봉에 날아나온 남조선정국을 유권자들은 암흑세상으로 만들어버렸었다. 예로부터 부자가 하나이면 세 송대가 망한다고 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 하수인들에 의해 개, 돼지 취급당하며 모진 고통을 겪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원한과 분노가 어찌 하늘에 닿지 않았겠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어찌에도 참고 넘어 가면 우리는 스스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돼지가 되는것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반역무리를 정밀하고 사람 못할 세상을 같이일기 위해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단언과 권리를 짓밟으며 재물을 불리는 인민의 분노, 민주의 제지이다. 이런 반정부인사 전막한 무당당이 특권층이 박근혜를 폭주까지 지원 조종하며 오유한 마마함에서 제지코리 날듯 어지럽게 늘어날수 있었고 열배진 청와대역의는 의 황망한 주봉에 날아나온 남조선정국을 유권자들은 암흑세상으로 만들어버렸었다. 예로부터 부자가 하나이면 세 송대가 망한다고 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 하수인들에 의해 개, 돼지 취급당하며 모진 고통을 겪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원한과 분노가 어찌 하늘에 닿지 않았겠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어찌에도 참고 넘어 가면 우리는 스스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돼지가 되는것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반역무리를 정밀하고 사람 못할 세상을 같이일기 위해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단언과 권리를 짓밟으며 재물을 불리는 인민의 분노, 민주의 제지이다. 이런 반정부인사 전막한 무당당이 특권층이 박근혜를 폭주까지 지원 조종하며 오유한 마마함에서 제지코리 날듯 어지럽게 늘어날수 있었고 열배진 청와대역의는 의 황망한 주봉에 날아나온 남조선정국을 유권자들은 암흑세상으로 만들어버렸었다. 예로부터 부자가 하나이면 세 송대가 망한다고 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 하수인들에 의해 개, 돼지 취급당하며 모진 고통을 겪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원한과 분노가 어찌 하늘에 닿지 않았겠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어찌에도 참고 넘어 가면 우리는 스스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돼지가 되는것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반역무리를 정밀하고 사람 못할 세상을 같이일기 위해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단언과 권리를 짓밟으며 재물을 불리는 인민의 분노, 민주의 제지이다. 이런 반정부인사 전막한 무당당이 특권층이 박근혜를 폭주까지 지원 조종하며 오유한 마마함에서 제지코리 날듯 어지럽게 늘어날수 있었고 열배진 청와대역의는 의 황망한 주봉에 날아나온 남조선정국을 유권자들은 암흑세상으로 만들어버렸었다. 예로부터 부자가 하나이면 세 송대가 망한다고 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 하수인들에 의해 개, 돼지 취급당하며 모진 고통을 겪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원한과 분노가 어찌 하늘에 닿지 않았겠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어찌에도 참고 넘어 가면 우리는 스스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돼지가 되는것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반역무리를 정밀하고 사람 못할 세상을 같이일기 위해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단언과 권리를 짓밟으며 재물을 불리는 인민의 분노, 민주의 제지이다. 이런 반정부인사 전막한 무당당이 특권층이 박근혜를 폭주까지 지원 조종하며 오유한 마마함에서 제지코리 날듯 어지럽게 늘어날수 있었고 열배진 청와대역의는 의 황망한 주봉에 날아나온 남조선정국을 유권자들은 암흑세상으로 만들어버렸었다. 예로부터 부자가 하나이면 세 송대가 망한다고 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 하수인들에 의해 개, 돼지 취급당하며 모진 고통을 겪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원한과 분노가 어찌 하늘에 닿지 않았겠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어찌에도 참고 넘어 가면 우리는 스스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돼지가 되는것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반역무리를 정밀하고 사람 못할 세상을 같이일기 위해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남조선 언론이 주장

남조선 언론이 주장

남조선 언론이 주장

남조선 언론이 주장

남조선 언론이 주장

남조선 언론이 주장

남조선 언론이 주장

남조선 언론이 주장